

# 제1회 청소년 X-Game 대제전

## 동민화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기여



지난 27일 대전대학교 운동장과 진입로에서 개최된 제2회 선단동민 경기대회 및 제1회 청소년 X-Game 대제전에 많은 시민과 청소년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포천시 선단동(동장 강병수)과 선단동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박순복)는 지난 27일 대전대학교 운동장과 진입로에서 제2회 선단동민 경기대회 및 제1회 청소년 X-Game 대제전을 개최했다.

경기대회와 함께 개최한 청소년 X-Game 대제전은 '함께 하는 선단, 아름다운 선단'을 만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정착을 위해 마련돼 선단동 및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육부문의 길거리농구와 풋살축구(중·고등부) 및 문화부문의 노래와 댄스 경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농악놀이시연(선단초 풍물부), 민속놀이시연(포천시립민속예술단), 관악시연(포천중고 관악부) ▶개회식은 개회선언, 내빈인사, 청소년 비전 선포식 ▶식후행사로 인라인과 BMX 묘기자전거 시범 등이 이어졌다.

본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한 경기와 인라인스케이트 타기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육부문의 길거리농구와 풋살축구(중·고등부) 및 문화부문의 노래와 댄스 경연이 펼쳐졌다.

이벤트 및 부대행사로 경품추첨, 페이스페인팅, 선단초 어머니회의 불어웃돌기 먹거리 장터 개설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졌다.

박순복 선단동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대회를 통해 동민 화합을 마련하고 X-

Game 대제전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만큼 이번 대회가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 각 부문 입상은 ▶중등부 농구 남자부(포천중), 우승입니다(포천중), 165(포천중) ▶고등부 농구 제대합격(포천고), 라온(포천고, 포천중고), 웰린저스(동남고)·이쁘니(의정부고) ▶중등부 축구 두발자유(포천중), PSV(포천중), 놀아줄까(포천중), 선단(포천중) ▶고등부 축구 개썰(포천고), 최진영과 척척한놈들(포천중고), 쵸비타도(동남고, 의정부고)·단무지아카데미(포천중고) ▶노래부문 조민철·최상하(포천중), 김수미(선단초), 이석원(도봉정보산업고), 장규용(영북고), 임수인·이모경(선단초) ▶댄스부문 배영수·황정우·백승환(의정부공고), 유채림·김재은(신봉초), 김연주·이나래(포천여중), 이민정·이승후(선단초), 김민준·장도훈(포천중고).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단동청소년지도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체육회 등 400여명의 지역 기관 단체 회원들과 150여명의 중학생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민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2005 청소년 문화축제 Passion

## 일동지역 새로운 청소년 문화 정착 기대



2005 청소년 문화축제 Passion이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두시간 동안 일동면 기산리 일동동부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가팀들의 열연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의 힘과 열정, 가능성을 북돋우기 위한 2005 청소년 문화축제 Passion이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두시간

동안 일동면 기산리 일동동부교회(목사 김진현)에서 개최됐다. 일동면사무소와 일동청년회가 협찬하고 일동동부교회가 주관한 이

번 청소년 문화축제는 일동지역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에는 2인조 그룹 나무자전거와 일동중고 밴드부 이클립스, 강원대 합창그룹 Project 14, 동부교회 워십댄스팀 ASK를 비롯해 YWAM SUM팀, DJ Jesus 등이 출연해 지역 청소년 등 500여명과 어우러진 열띤 무대를 펼쳤다.

일동동부교회 10대부 서광석 교육전도사는 "일동지역에는 1천200여명의 청소년이 있지만 그동안의 문화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청소년들의 큰 호응 속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가 새로운 지역 청소년 문화로서 자리 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제의 지속적 개최와 정착을 위한 포천시의 관심을 호소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경기도민장학금 12명에게 수여

## 재경포천시민회 포천여성회관에서 전달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는 지난 27일 오후5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금 1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고조홍 국회의원, 변진수 포천교육장 등 내빈과 장학금 및 학부모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경기도민회회 장학금을 재경포천시민회가 대신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재경포천시민회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달하는 장학금 중 하반기 장학금으로 포천 출신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포천시가 추천하는 대학생 6명과 전문대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기도민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대학생 1인당 150만원, 전문대학생 1인당 120만원, 고등학생 1인당 6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혜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경숙(강원대 3년)▶홍성란(숙명여대 1년)▶윤은정(서울여대 2년)▶김양훈(한국외대 1년)▶윤은혜(성신여대 4년)▶이선미(한성대 4년)▶나연미(신흥대 1년)▶김은영(신흥대 1년)▶박수경(포천중 합고 3년)▶유소라(관인고 2년)▶이혜미(포천고 2년)▶최강철(포천고 3년).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재경포천시민회는 지난 27일 오후5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금 1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 정 별, 문광부장관기 태권도 중등부 금메달

## 갈월중 종합준우승 차지

갈월중학교 태권도부(감독 진종철, 코치 김태선)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여 중·고 태권도대회 중등부 예 출전 정별(2년) 선수가 핀에서 금메달을 남소리(2년) 선수가 라이트미들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갈월중태권도부는 이번 대회에 총 11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대회 종합준우승을 차지해 태권도 강팀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다.

한편 김태선 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추산초 김유진 선수는 7월 개최



제16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여 중·고 태권도대회 중등부 예 출전 갈월중 태권도부 임원 및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했다.

된 문광부장관기 초등부 대회에서 밴텀급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김순진의 연재 수필

## 아빠 어렸을 적에(37)

#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명석이 아버지의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산초나무로 나무에 가시가 많이 있어 질리기 쉬우므로 남들이 잘 해가지 않는 나무입니다.

공수 아버지의 나무도 따로 있습니다. 공수아버지는 멀리 가기를 싫어했으므로 동네 주변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해다 땀니다. 그 나무 역시도 나무에 가시가 많으므로 남들이 잘 해 가지 않는 나무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금방 해다 때어도 나무에 수분이 적어 불 담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무도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전 발이 묶은 비탈을 찾아 산땀기나무와 풀 나무가 섞여 있는 나무를 잘 해 오십니다.

큰산에서 나무를 하려면 리어 카로 실어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소에 발구를 달아 끌어내리는 방법이 나무도 많이 싹고 힘도 덜 들고 좋습니다.

발구는 사다리 꼴 모양으로 소에 멩에를 얹어 끌어내리는 방식

인데 소를 처음 길들일 때도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비탈을 내려오는지라 어린 소라도 웬만한 소라면 얼마든지 끌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안이는 나보다 한 살 위인 삼 학년으로 우리 집의 가운데 방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한일(-)자 집입니다. 우리 집의 형태는 방하나 부엌 하나, 방하나 부엌 하나, 방하나 부엌 하나의 형태로 완전히 피난민 판자촌 식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런 집에 살게 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 뿐만 아니라 동네 여러 가족들이 그런 한일(-)자 집입니다.

우리 집은 원래 동네의 한가운데인 1032번지인 지금의 군부대 가운데 아주 좋은 집터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져 피난을 갔다 오니 동네 마을 자리는

군인부대가 주둔해 있었고 피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군인들이 지은 집에 살게 되었던 것 이랍니다.

군인들은 흙벽돌을 짚어 담을 쌓고, 참나무나 아무 나무라도 서까래를 걸어 철조망의 강철을 카터로 끊어 못 대신 때려 박고, 그 위에 루벳 지붕을 얹어 민간인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루벳 지붕은 기름떡인 두꺼운 종이위에 톨타르를 바른 지붕인데 비가 새지 않아 좋긴 하지만 불이 나면 금방 푸석하니 태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나마 루벳 얹힌 지붕이 오래되어 낡고 찢어져 그 위에 이엉을 몇 번이나 덧 씌운 따뜻한 초가집입니다.

동안이네는 군인가족으로 동안이 아버지는 인근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중사입니다.

보통 육군 상사나 준위, 중위, 대위쯤은 봉급이 좀 나온지라 아궁이에 뿔 뿔감도 쓰이니나무 장작을 사다 때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사의 가정은 뼈대한 봉급으로 생활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벗짚을 사서 때던지 아니면 군인의 부인들이 직접 나무를 해서다 때 는 가정이었습니니다.

동안이네 집도 그리 넉넉한 살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림이 아니었으므로 동안이 엄마는 동네의 농사짓는 아나들과 마찬가지로 먼 산 중턱까지 올라가 나무를 해 머리에 여다 때고 삼 나무다.

동안이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하느라 아궁이에 자신이 해서이고 온 풀 나무를 아궁이에 때고 있었습니니다.

"간장 사이소, 간장 몽고간장 사이소, 왜간장 사요."

밖에서는 간장 장사가 간장 사라는 음성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간장 왔습니니다! 간장 이라에, 입에 짹짹 불는 왜간장이라에."

(계속)

# “고객은 가슴으로, 안전은 지식으로”

## 산업재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고를 신고하나?**
  - 사망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 산재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 산재보상을 위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2가지중 한가지만 하면 됨)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종전의 년 1회에서 금년부터 년 4회로 늘렸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의 1일~7일 사이입니다.
-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미신고로 인한 사법처리가 유보됩니다.

